

조국 '감찰무마' '가족비리' 사건 병합

첫 공판준비기일 내달 12일 오전으로 연기돼

피고인 출석의무無... 변호인 통해 입장 밝힐 듯

뇌물수수 포함 11가지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29일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첫 재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병합돼 다음 달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했지만 조 전 장관 측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겨져 일가의 비위 의혹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뇌물수수 사건을 병합했다. 이에 오는 2월12일 오전 10시 20분 김 부장판사는 병합된 두 사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조 전 장

관은 불출석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 관련 입장을 법정에서 처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29)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하여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 교사 및 증거변조 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깨끗하게 손씻기

정부가 중국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28일 개학한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수도관에서 손을 씻고 있다.

'靑 선거개입' 수사하다 좌천 부장검사, 반발성 첫 사의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어려울 때 떠나 안타깝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좌천성 인사 발표되자 사의를 밝혔다. 지난 23일 중간간부 인사 이후 첫 사의 표명이 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49·사법연수원 31기)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르스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너무나 어려울 때 검찰을 떠나게 돼 안타깝다. 밖에서도 늘 검찰

을 응원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또한 "2009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공안 업무를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공안 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과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의 마지막 공공수사3부장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글에는 구체적인 사직 이유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최근 울산지검 형사5부(전 공공수사부)로 발령이 난 김 부장이 '좌천성' 인사에 반발하며 사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2017년 8월 초임 부장으로 울산지검 공안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초임 부장 시 근무지로 다시 발령을 낸 것은 통상 이뤄지는 인사 방향과 달라 좌천성 전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검찰의 직책수사 축소를

끝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되면서 김 부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형사부로 전환되기도 했다. 지난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김 부장을 비롯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주요 간부들이 전보되면서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주로 맡고 있지만, 김 부장이 이끄는 공공수사3부 또한 김 부장과 검사 일부가 돕는 방식으로 수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뉴스1

◆ 단신 ◆

도박빚 안갇이준다고 외할머니 폭행 20대 손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면서 외할머니를 폭행한 혐의(폭행·협박)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40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집에서 70대 외할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진 빚 850만원을 갚아달라고 외할머니에게 요구했지만 할머니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외할머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 긴급입시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외할머니가 A씨에게 추가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방침이다.

편의점 취업 첫 날 250여만원 금품 훔친 20대

취업한 지 만나질 만에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준강도 혐의로 A씨(2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자신이 일하던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한 편의점 금고에서 현금 6만8300원을 훔치고, 기프트카드와 교통카드에 각각 80만원과 78만원을 충전하는 등 금품 258만3000원어치를 절취한 혐의다. A씨는 또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뒤쫓던 상가직원 C씨(39)의 옆구리를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한 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편의점주 B씨(55)가 CC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던 중 발각됐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확인을 부탁했고, C씨는 우산으로 찌르며 달아나는 A씨를 약 500m 추격 끝에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 직원으로 취업해 이날 오후 첫 출근하는 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복역했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시한다 다툼벌이다 흥기로 동생 찌른 형 구속

장성경찰서는 동생을 흥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30분쯤 전남 장성군의 한 주택에서 동생(55)의 팔을 흥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동생이 평소 애를 먹었던 A씨를 무시했다면서 다툼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동생은 설 명절을 맞아 장성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길가던 연인에게 묻지마 흥기 휘둘러 남자 사망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서 길을 가던 연인이 50대 남성에게 공격을 당해 커플 중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설 연휴기간인 26일 새벽 1시쯤 효창동에서 길을 가던 커플에게 시비를 걸고 흥기로 공격해 연인 중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남성은 옆구리를 흥기로 찌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여성도 폭행을 당해 눈 주변이 함몰되는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2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061)393-3200

금성미화사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